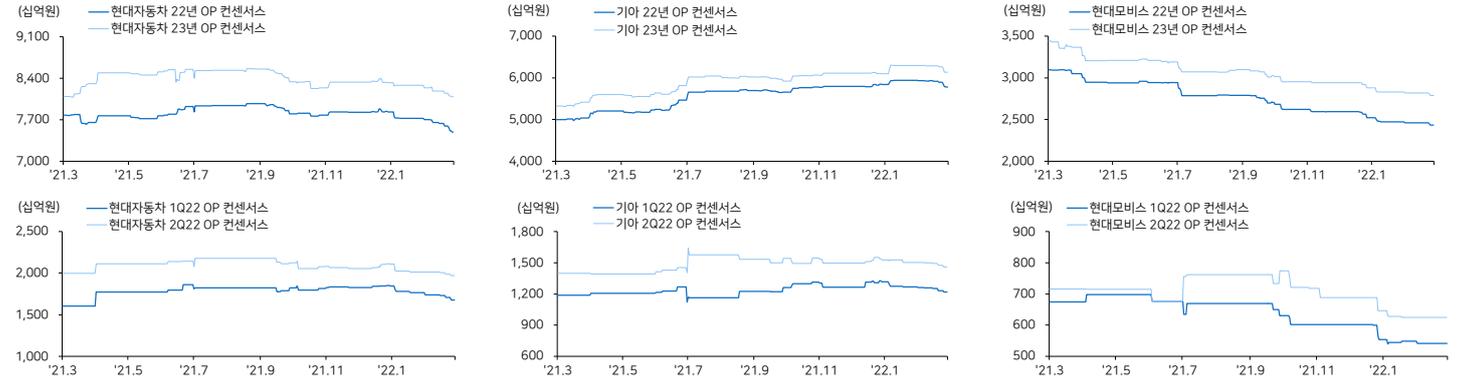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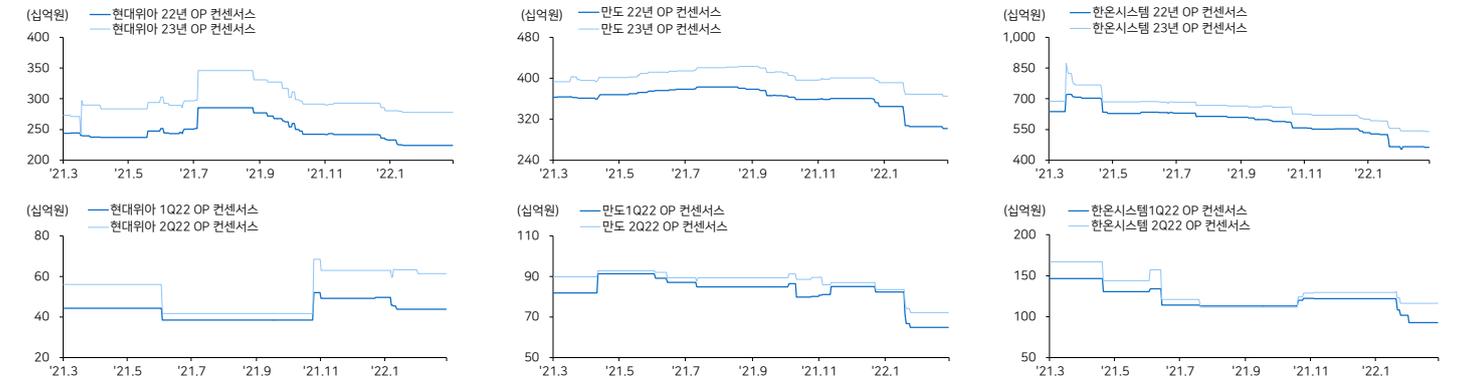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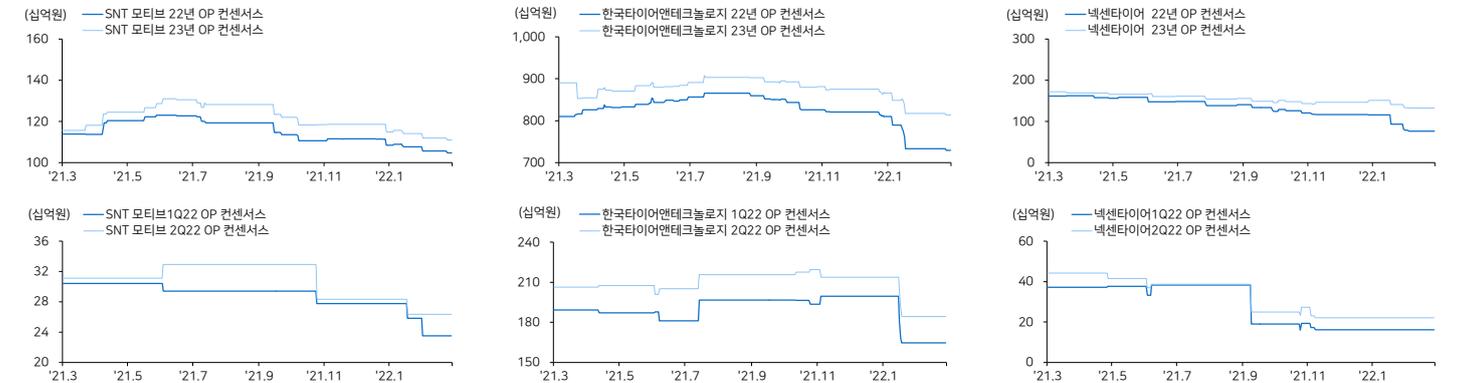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토요록은 또 멈춘다...전쟁·코로나·부품난 '3중고' (헤럴드경제)

현대차는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는 26일 오후 1~5공장 전 공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우크라이나·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생산 차질에 주 원인으로 해석됨.
<https://bit.ly/3NaQRKv>

차량용 반도체 공장 만들면 예산 40% 지원할 것... 이탈리아, 인텔에 파격 제안 (디지털데일리)

최근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탈리아가 인텔을 자국에 유치시키기 위해 인텔의 투자금 중 40%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. 해당 시설은 '25~27년 가동할 것'을 전망함.
<https://bit.ly/3D0U7L4>

Elon Musk announces Tesla is working on new manganese battery cell (electrek)

일론머스크는 Giga Fest에서 망간 기반 음극재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, 업계는 광물까지 전체 공급망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. 또한 당분간 장거리용 니켈 기반, 단거리용 철인산염 기반 화학물질을 집중할 것을 재검토함.
<https://bit.ly/3qtUmsZ>

Electric cars are now three to six times cheaper to drive in the US as gas prices rise (electrek)

유가와 휘발유 가격과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운행이 내연기관차 운행보다 3~6배 저렴해짐. 기존에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운행비용이 적었으나,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이러한 생각이 더욱 확산되는 중.
<https://bit.ly/3D1rhua>

북하면 노조 반대... 현대차 해외 생산량, 또 국내 추월 (조선비즈)

국내 공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162만대로 2020년보다 0.1%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, 중국을 제외한 현대차 7개 해외 법인의 지난해 생산 물량은 총 185만대(yoy +15.4%)를 기록함. 노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이 원인으로 지목됨.
<https://bit.ly/36ilC9N>

중국, 천정부지 리튬 가격 '총력전' (아주경제)

중국 당국이 리튬 가격 안정화에 발 벗고 나서면서부터 리튬 가격이 한풀 꺾임. 리튬 밸류체인 다운스트림 업계의 재고량이 충분하고 고비용 리튬 구매 의욕이 낮은 데다 생산능력 증대 등으로 2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 전망이 지배적.
<https://bit.ly/3N8yNbn>

Lucid and BYD will use NVIDIA's DRIVE self-driving platform (electrek)

엔비디아는 중국 BYD와 Lucid Motors가 자사의 DRIVE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. Lucid는 이미 DRIVE Hyperion 플랫폼을 사용 중이며, BYD는 '23년도 Hyperion 플랫폼과 Orin 칩을 사용할 계획.
<https://bit.ly/3ucGmoE>

Intel, Micron CEOs to make case for U.S. semiconductor subsidies (Reuters)

인텔과 마이크론이 미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 촉진을 위한 미국 정부 보조금 배정을 촉구할 예정. 팹 건설이 인텔 CEO는 미국 정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, 마이크론 CEO는 520억 달러 보조금 승인을 촉구함.
<https://reut.rs/36GJh0o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